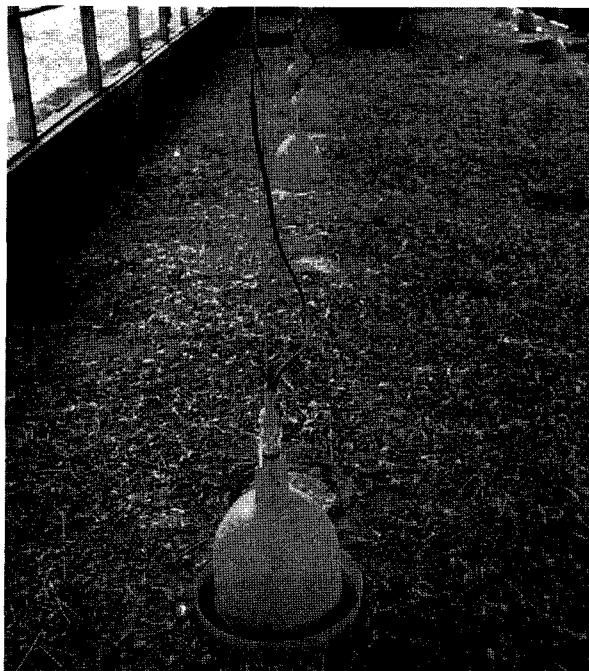


특집III / 기획취재 · 육계 깔짚 연속사용 실태 문제점 분석

깔짚 연속사용시 환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 취재/김동진 기자



◀ 최근 깔짚의 연속사용에 따른 질병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생 산비 이하를 밑도는 육계 산지출하 가격의 하락이 장기화 되는데도 좀체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육계 농가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처럼 육계업의 유통이 시



▲벗짚은 보온성이 뛰어나 어린병아리의 깔짚으로 적당하다.

장의 흐름에만 의존하다 보면 가격이 떨어지는 때에 자칫 사양관리에 소홀하게 되어 피해가 더욱 심해질 수 있음을 사양가들은 인지해야 할 것이다.

육계사육이 모두 평사인 육계농장에서는 생산성향상의 노하우를 해결해 보려는 방편으로 발효계사를 이용한 깔짚의 연속사용을 시도하는 농가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질병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농가에서는 일시출하를 못할 경우 먼저 사용했던 계사바닥에 기본적인 방역만을 실시하고 깔짚을 덧깔아 입추를 시키는 사례도 있어 농장을 질병의 온상으로

만들기도 한다.

육성 전 기간을 통하여 사용되는 깔짚은 계군의 최종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깔짚의 재료, 양, 질 등을 고려하여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깔짚의 연구와 중요성 인식이 부족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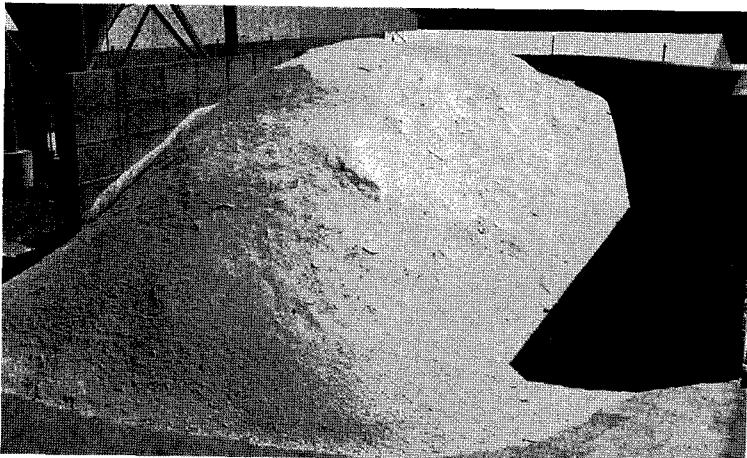
여 지역여건과 가격에 의해서만 선택, 사용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어지는 깔짚으로는 왕겨, 벗짚, 텁밥, 목재짚 등이 있는데 그중 구하기 쉽고 싸다는 이유로 왕겨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질병 발생의 원인중 대부분은 계사바닥의 부실한 관리에 있는 만큼 깔짚의 중요성은 아무리 설명해도 지나칠게 없는데 계사내 암모니아 가스가 25ppm만 있어도 육계의 증체와 사료효율이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고 먼지가 계사내에 가득하면 병원체들이 먼지입자를 타고 닭들의 호흡기를 통해 감염될 우려가 있어 계사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시키면서 먼지, 가스, 수분 등을



▲목재짚은 뛰어난 흡습력과 먼지발생이 적은 반면 일반농가에서 구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톱밥은 부드럽고 건조하여 흡습성이 좋으나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다.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환기관리도 깔짚과 관련해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깔짚은 청결하고 위생적이어야 하며 부드럽고 건조하여 흡습성이 좋아야 한다. 만일 건조가 덜된 깔짚을 사용할 경우 세균과 원충의 생존과 성장을 도와주게 되며 가슴부위 수포와 다리질환의 원인이

된다.

톱밥 발효계사를 이용하여 10회전 이상 깔짚을 연속 사용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는 몇 농가의 경우를 보면 깔짚에 적당량의 발효제와 물을 혼합한 후 입추 20일전에 10cm 이하의 두께로 깔아 완전 발효상태를 만든후 2회전 부터는 굳이 발효제를 섞지 않아도 계분과 깔짚의 상호작

용에 의해 발효효과를 얻을 수 있어 급수기에서 흘린 물로 인해 냉어리가 생긴 곳이나 습한 곳은 깔짚을 덧 깔아 주는 관리방식을 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은 발효가 완전히 안된 상태에서 사육을 할 경우 가스발생이 심해 호흡기질병 등 폐사의 확률이 높아지지만 완전발효가 된 상태에서는 소화촉진 등으로 사료효율이 높고 닦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며 회전수가 늘어나고 깔짚 사용이 적고 비용효과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건비 절감과 발효된 계분은 선호도가 좋아 수익성에도 일조를 한다는 장점을 꼽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시도하다 생산성이 좋지않아 중도에 포기한 사양가들이 많은데 이들은 확실한 발효방법과 이에 따른 사양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깔짚을 연속 사용할 경우 해로운 균이 잔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60cm 이상 계분이 쟤 경우 계분처리의 문제성 뿐 아니라 계사내 발생하는 가스와 열에 대한 환기문제 때문에 사양관리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어 완벽한 방역하에 1회전씩 사

〈예1〉

구 분	입축수수	출하수수	일 령	평균체중	사료요구율	육성률
일반사육시	11,600	11,415	37	1.6	1.82	98.4
발 효 시	13,700	12,000	40	1.6	2.03	87.5
연속발효시	15,900	14,900	40	1.4	2.02	94.2

〈예2〉

구 분	입축수수	출하수수	일 령	평균체중	사료요구율	육성률
발 효 시	17,300	16,400	38	1.5	1.96	94.7
연속발효시	17,800	16,590	43	1.7	2.10	93.2
일반사육시	20,000	19,500	41	1.9	1.86	97.5



▲왕겨를 이용한 발효계사 내부모습(성적이 좋고 나쁘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편이다.)

양관리를 해 나가는 쪽을 지향하고 있다.

〈예 1〉과 〈예 2〉는 두 농가에서 '92년 9월부터 비교적 비슷하게 입추되어 '93년 3월 까지 3회전을 하면서 왕겨발효를 연속시도했을 때와 발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적을 비교한 내용인데 발효에 의한 깔짚의 연속사용시 육성률이 낮고 사료요구율이 높아 성적이 부진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를 볼 때 발효계사를 이

용하여 질병없이 성적을 올리고 있는 사양가들은 나름대로의 특수한 관리방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운이 좋아 질병발생이 나타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만약 깔짚 발효계사가 생산성 향상에 일조를 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조속히 정립되어 농가에 보급되는 방안이 과제로 남게된다.

발효계사든 발효계사가 아니든 성적이 좋았던 공통점을 보면 공기의 흐름을 원활히

시켜 환기에 신경을 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깔짚은 종류에 따라 장단점이 있는데 톱밥은 부드럽고 건조하여 흡습성이 좋으나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고 목재 깊은 목재 자체의 특수성분과 뛰어난 흡습력으로 가스발생이 줄어들고 먼지발생이 적은 반면 재료를 만드는 기계의 비용이 많고 일반농가에서 구하기가 힘든 단점이 있다.

왕겨는 구하기가 수월하고 싼 반면 수분흡수력이 떨어지며 벗짚의 경우 보온성은 뛰어나지만 먼지발생이 심한 단점을 안고 있다.

어떤 종류의 깔짚을 사용하든 환기를 위주로 연변방지, 급수기의 누수관리, 배수시설 등에 주의가 필요하며 깔짚을 연속사용할 경우는 여러상황을 고려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불황속에서도 내실있는 경영을 유도해 나아갈 수 있으리라 본다. **양기재**

